



서구, 김민정 팀장 ‘7월 MVP 공무원’

광주 서구는 ‘7월 MVP공무원’으로 김민정 팀장(교통지도과)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서구 MVP선발위원회는 “김 팀장은 금호1동 마을자치팀장으로 일하면서 ‘상생마을’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며 “4개동을 하나로 묶는 ‘함께하는 생활권’ 조성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김 팀장은 202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호1동 마을자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생마을’ 조성에 앞장섰다. 마을화폐인 ‘내결에 상생화폐’ 발행·유통에 힘쓰고 수익금 10%를 마을발전 및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는 등 선순환 나눔문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또 관내 초등학교 학생총회와 마을 축제를 연계해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상생마을 We로 한마당’을 기획·운영하고 ‘함께하는 생활권’인 4개동(금호1동, 양동, 능성1동, 상무2동)이 하나되는 ‘천사들의 페스티벌’을 개최해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김 팀장은 “행정도, 마을 일도 여럿이 함께 할 때 더 큰 의미가 있고 값진 성과를 낼 수 있음을 몸소 경험했다”며 “금호1동 주민 모두가 MVP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LH재능모아봉사단, ‘소화천사의집’ 봉사

LH광주전남지역본부(LH)는 5일 ‘LH 재능모아봉사단’이 남구 소재 지역복지공동체인 ‘소화천사의집’을 대상으로 재능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재능모아 봉사단은 임대주택 입주민이 LH 작은도서관을 통해 먼저 배운 지식과 재능을 기반으로 품앗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단체로 지난달 출범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찾아가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소화천사의집 식구들을 인근에 위치한 ‘LH 숲속작은도서관’에 초대해 그림과 공예(보테니컬아트, 팝아트, 도우아트 등)가 접목된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12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소화천사의집은 성인 여성 발달장애인 40여명이 거주하는 시설로 이용인의 삶을 향상해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곳이다.

정수미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재능모아봉사단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나눔문화 공동체가 확산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전남인평원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일까지 보름여간 ‘한날한시, 배우고 즐김’ 탄소중립 실천 평생학습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2024년 전남형 생태학습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된 여수·나주·담양·곡성·구례·화순·강진·해남·완도·진도 등 10개 시군에서 400여 명이 참여해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주워 지역 생태환경자원을 소중히 아끼고 보호하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2050 전남 탄소중립 실천 및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전남 유치에 위한 활동에도 나서 도정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였다.

오지현 기자



광주세관, 8월 ‘으뜸 광주세관인’ 박진경씨

광주본부세관은 철저한 정보분석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한 박진경 주무관을 8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사진)

박진경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 가격 결정방법, 수입 실적 및 외환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해 탈루 세액 28억4000만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972억원을 적발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본부세관은 매일 탁월한 업무 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광주세관인’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최권범 기자



고속도로 하계 휴가철 안전운전 캠페인

전남경찰 고속도로순찰대 제5지구대는 5일 무안광주고속도로 합평나비휴게소에서 고속도로 하계 휴가철 안전운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캠페인에는 고속도로순찰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연구원, TBN 등 5개 기관이 함께했으며, 속도로 이동량이 많아지는 하계 휴가철 안전운전 예방 홍보를 위해 아이스크림, 차량용 타월, 물티슈 등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전방 주시태만, 졸음운전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캠페인과 함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유관기관 합동순찰 및 사망사고의 주요 법규위반인 안전띠 미착용 단속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광주교통공사-광산경찰, 불법 카메라 점검

광주교통공사는 광주광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공항역을 비롯한 5개 역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이날 합동 점검에서 양 기관은 불법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해 화장실 내부 전체 칸을 점검했으며, 특히 콘센트, 조명, 환풍기 등 불법 촬영에 취약한 장소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며 불법 촬영 예방활동을 펼쳤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20개 전 역사에서 매일 불법 카메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선제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황정음, 김종규와 결별… 열애 인정 2주만

배우 황정음(39)과 농구선수 김종규(33·원주 DB)가 공개 열애 2주 만에 헤어졌다.

소속사 와이엔터테인먼트는 5일 “황정음과 김종규는 최근 서로 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단계였다”면서도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별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고 청했다.

황정음은 지난달 22일 김종규와 열애를 인정했다. 올해 초 전 프로골퍼 이영돈(41)과 이혼소송이 알려진 지 5개월 여 만이다. 황정음은 이혼소송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김종규에게 위로 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황정음은 이영돈의 불륜을



황정음·김종규

주장, 비연예인 A를 상간녀로 오해·저격하는 등 소동을 벌였다. 아직 결혼 관계를 마무리 짓지 않고 새로운 만남을 이어간 만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종규 역시 황정음과 교제 후 악플세례를 받는 등 부담이 큰 것으로 보였다.

황정음은 2016년 이영돈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는 두 아들이 있다.

뉴시스

조정석 코미디 ‘파일럿’ 주말에만 100만명 봤다

공개 첫 주말 관객수 109만명

배우 조정석이 주연한 영화 ‘파일럿(사진)’이 공개 첫 주말 100만명이 넘는 관객을 끌어 모으며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파일럿’은 2~4일 109만5405명(영화진흥위원회 기준)이 봐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174만4458명이다. 현재 추세라면 무난히 200만명을 넘고 300만 관객도 노려볼 수 있을 거로 전망된다.

2019년 ‘가장 보통의 연애’로 데뷔한 김한결 감독이 연출한 이 작품은 TV 예능프로그램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파일럿인 ‘한정우’가 사내 술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면서 나라로 떨어지고,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리자 동생인 ‘한정미’로 위장해 다시 파일럿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조정석이 한정우를 연기했고, 한선화·이주영·신승호 등이 출연했다. 2012년에 나온 스웨덴 영화 ‘픽픽’이



원작이다.

이밖에 주말 박스오피스 순위는 2위 ‘데드풀과 울버린’ (26만1892명·누적 166만명), 3위 ‘슈퍼배드4’ (25만 6462명·누적 117만명), 4위 ‘인사이드 아웃2’ (11만8953명·누적 855만명), 5위 ‘탈주’ (6만9742명·누적 248만명) 순이었다.

뉴시스

주현영 “27년 진행 최화정, 절대 대신할 수 없죠”

파워FM ‘12시엔 주현영’

“27년 진행한 최화정 선배는 절대 대신할 수 없죠.”

배우 주현영이 낮 12시 SBS 라디오를 책임진다. ‘최화정의 파워타임’이 1996년 첫 선을 보인 후 27년 만에 폐지, 주현영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주현영은 5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파워FM ‘12시엔 주현영’ 간담회에서 “부담없고 자신있었다”고 한다면 거짓말이라며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 ‘정중하게 거절해야 하나’ 생각할 정도였다. 최화정 선배님은 긴 시간 동안 깊은 유대감을 다져서 너무나도 부담됐다”고 털어놴다.

“오늘 청취자들과 상견례 또는 소개팅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전날 밤 소풍 가는 기분으로 잠들었다. 최화정 선배님이 해온 걸 절대 대신하지 못한다는 걸 잘 안다. 새로운 매력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서툴러도 차차 알아가고 싶다. 그 안에서 소소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다.”



주현영은 이날 라디오에서 첫 인사했다. ‘SNL 코리아’ 시즌1~4(2021~2023)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021) 등에서 친근한 매력을 뽐냈는데,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DJ가 되는 게 목표다.

“5년은 하고 싶다. 절대 쉽지 않은 시간”이라면서도 “오늘 라디오에서 ‘자기 자신을 과소 평가하지 말자. 우린 강하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겁먹고 있는 것 같다. 내 강점은 멘탈이다. 멘탈 관리를 비장의 무기로 준비했다”며 웃었다.

“일이 벌어지면 해결하는 스타일이다. 멘탈 관리를 잘해 토네이도가 와도 뻘되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청취자들과 만나고, 작품 하는 시간을 값지게 쓸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못 잡는 순간도 있겠지만, ‘흔들리더라도 바로 세워서 제대로 하겠다’고 각오했다.”

뉴시스